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자 만족도 100%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음 2월 13일) 제15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23

도내 총선 대진 확정... 본선 레이스 돌입

전교조 전임자 해고 현실화 전북도교육청은 조치 유보



“이의 있습니다”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5차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광진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 뒤에서 손을 들어 의사진행방해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더민주 공천 마무리 국민의당, 전주 을·완주진무장 2곳 공천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제20대 4·13총선의 전북 정치권 대진표가 주말을 기점으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후보 공천을 마무리, 사실상 선거구별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본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전주을과 완주진무장 등 2곳의 공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공천 후보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단수 추천을 통해 공천을 매듭지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익산갑 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병도 후보를 익산을 선거구에 전략공천하면서 총선 출마자를 모두 확정했다. 익산을의 경우 경선 탈락하면 출마할 수 없다는 당헌 당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까지 전략 공천에 불려받기 공천이라는 논쟁을 받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춘석 후보(익산 갑)를 확정전데 이어 18일 군산 선거구에 김윤태(53) 교수를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당은 20일 전주갑에 김광수 후보와 김재부후에 김종희 후보를 결정하면서 지역 선거구별 대진표의 대체적인 윤곽을 나타냈다. 다만 전주을과 완주진무장 선거구는 20~21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시점이 되면 제 20대 전북 선거구는 완료된다.

<정당별 공천 현황>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전주 갑	전희재	김윤덕	김광수	
전주 을	정호현	최형재	경선 (이춘석 김우석 민영규 임우상)	
전주 병	김성진	김성주	정동영	
익산 갑	김영일	이춘석	이한수	
익산 을	박종길	한병도	조배숙	권태홍
군산	채용욱	김윤태	김관영	조준호
정읍고창	김성균	허정원	유성열	
남원임실순창	김홍호	박희승	이동호	
김제부안	김효성	김준진	김종희	강성구
완주진무장	신재봉	안호영	경선 (이춘석 임우상 김우석)	

미확정된 선거구인 전주을은 장세환, 엄윤상, 김호서, 한명규 후보가 치열한 세대결에 들어갔다. 완주진무장주장은 김정호, 이든승, 임정영 후보 중 1명이 본선에 진출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새누리당 신재봉 후보와 자웅을 겨룬다. 이번 총선은 17대 총선 이후 '3당체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원의 정당 또는 무소속 출마 후보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소속으로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와 이강수 전 고창군수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다선의원 배출도 관심이다. 현재 재선인 이춘석(익산갑) 유성열(정읍고창) 후보와 3선인 김준진(김제부안) 후보가 수성을 다짐하고 있다. 또 3선이었던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후보는 4년 전 아쉬움을 떨치기 위해 17대 국회의원이었다던 더민주 한병도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신광영 기자

“퇴행적 정치 깨는 대연합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누리·더민주 탈락인사 영입 시사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0일 “퇴행적 정치구조를 깨고 미래로 가기 위해 시명감을 가진 모든 세력들의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에 대한 영입 제안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친박(親朴)의당과 친문(親文)의당과 국민의당의 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좌우로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바꾸려는 역사적 대의에

동요하는 모든 분들께 반패권 정치선언을 함께하고 양당 패권 정치를 깨기 위한 공통 분모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특히 “손을 잡고 각각의 위치에서 또는 하나의 공간에서 양당의 패권정치 청산을 의친다면 국민들께 더 큰 물림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 국민의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탈당과 등과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더민주의 최근 공천 상황에 대

해 “국민의 눈치를 보며 부패와 낡은 진보를 청산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공천자의 대부분이 친문세력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취급 질박에 질망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갑질 국회의원이 친문이라는 이유로 다시 공천됐다”며 최근 컷오프에서 구제된 윤후덕 의원의 경기 파주갑 공천 확정을 꼬집었다. 그는 또 “박탈 국회의원을 청산한다고 하더니 그 자리엔 또 다시 친문 핵심인사를 공천

했다”며 손혜원 위원장의 마포를 공천 역시 비판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소식에 대해서는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고 힐난했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 공천 상황에 대해서도 “답내 합리적 개혁 인사들에 대한 제약적 대통령 의폭악적 정치보복”이라며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여왕의 신하를 뽑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측근들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다수 신청한 것에 관해서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구체 언급을 피했다. /이성주기자

도, 전보·파견 등 국장급 인사발령

전북도가 지난 18일 전보, 파견 등 국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인사발령된 국장급 인사로 의회사무처장 전보에 총무과 김용만씨, 2017 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파견에 이종석 의회사무처장, 전북문화관광재단 파견에 총무과 구형보씨 등 3명이다. /정영수 기자

김용만	이종석
구형보	

제 6 회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 대회

그동안 청소년 마술 동호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올해로 6 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과 전주매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시	2016. 3. 26 (토) 15:00 ~
장소	전주 흥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
대회참가문의	전주매일 문화사업국(063.288.9700)